

## 참고 9.

### 시스템 리스크(systemic risk)

#### 서베이 결과)

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포착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다. 이하에서는 2023년 10월 30일~11월 6일중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았다.<sup>2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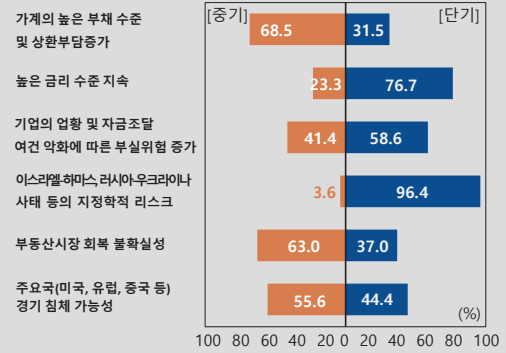
#### 주요 리스크 요인

2023년 하반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'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'(단순 응답빈도수 기준<sup>3)</sup>, 70.1%), '높은 금리 수준 지속'(55.8%), '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'(37.7%), '부동산시장 회복 불확실성'(35.1%)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.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'이스라엘-하마스,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'(36.4%), '주요국 경기 침체 가능성'(35.1%) 등을 지목하였다.

주요 리스크 요인의 발생 시기에 대한 평가를 보면, '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', '부동산시장 회복 불확실성', '주요국 경기침체 가능성'은 중기(1~3년)에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고 '지정학적 리스크', '높은 금리 수준', '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

부실위험 증가'는 단기(1년 이내)적 이슈라고 판단한 비중이 높았다.

#### 주요 리스크 요인<sup>1)</sup>별 발생 시계<sup>2)</su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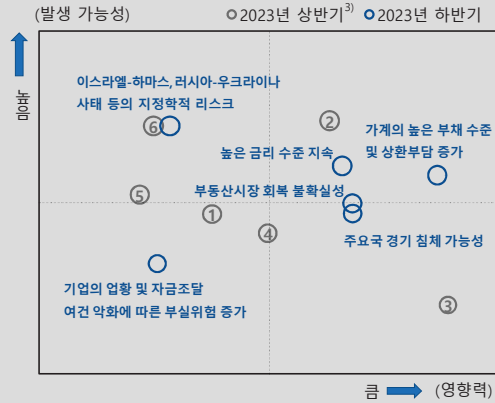
주: 1) 단순 응답빈도수 기준 상위 6개  
2) 응답 비중(%) (단기: 1년 이내, 중기: 1~3년)  
자료: 한국은행

#### 주요 리스크 요인별 발생 가능성 및 영향력

지난 상반기<sup>4)</sup>와 비교 시, 주요 리스크 요인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비슷한 수준이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큰 편으로 평가되었다. 응답자들은 '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' 및 '높은 금리 수준 지속'의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높다고 평가한 반면, '부동산시장 회복 불확실성', '주요국 경기 침체 가능성' 등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만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. 대외 리스크 중 응답 비중이 높은 '지정학적 리스크'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발생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지목하였다.

1) 본고는 백운아·박서정(은행리스크팀)이 작성, 이종한(금융리스크분석부장)·송길성(은행리스크팀장)이 검토하였다.  
2) 한국은행 ECOS 전자설문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총 82명(국내 금융기관 경영전략·리스크관리 담당자 등 72명 및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10명) 중 77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93.9%였다.  
3) 응답자별로 대내외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리스크 요인 5개를 선정토록 하였다. 괄호 안은 응답 비중으로, 응답 비중 70%는 응답자의 70%가 해당 리스크를 5개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였음을 의미한다.  
4) 2023년 상반기중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는 2023년 5월중 실시하였으며 당시 선정된 상위 6개 리스크 요인은 금반 서베이의 주요 리스크 요인과 다소 차이가 있다.

## 주요 리스크 요인<sup>1)</sup>별 발생 가능성 및 영향력<sup>2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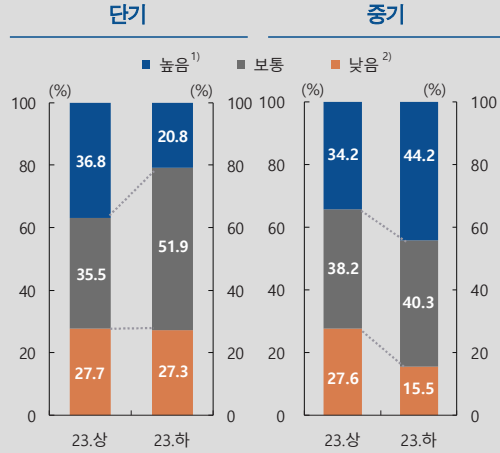


- 주: 1) 단순 응답빈도수 기준 상위 6개  
 2) 리스크 요인별 상대적 위치를 나타냄  
 3) 2023년 상반기 상위 6개 리스크 요인은 ①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, ②부동산시장 침체, ③금융기관 대출부실 및 우발채무 현실화, ④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, ⑤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, ⑥경상수지 적자 지속임  
 자료: 한국은행

##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 및 제고 방안

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중을 보면, 단기(1년 이내) 충격 발생 가능성을 ‘매우 높음’ 또는 ‘높음’으로 응답한 비중은 20.8%로 지난 서베이(36.8%)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. 반면 중기(1~3년)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44.2%로 지난 서베이(34.2%)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## 시계별 금융시스템 충격 발생 가능성



- 주: 1) ‘매우 높음’ 포함  
 2) ‘매우 낮음’ 포함  
 자료: 한국은행

한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수준이 ‘높음’ 또는 ‘보통’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96.1%로 상반기 서베이와 비슷하였다.

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다수가 ‘가계부채 디레버리징’과 ‘부동산PF 대출 관리’를 제시하였다. 또한 경기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한 ‘금융기관 대상 선제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’ 및 ‘자산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’과 함께,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‘감독당국과 정부 및 금융회사간 원활한 소통’, ‘금융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거시건전성 정책의 활용 증대’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.